

## 『西遊記』研究史

磯部 彰\* 著・羅善姬\*\* 譯

### I. 『西遊記』라는 作品에 대해서

명대의 四大奇書의 성립은 중국문학사에 있어서 특이한 색채를 발하는 사건이다.

四大奇書 중에서 『三國志通俗演義』는 난세에 처한 장군과 도적들의 야심을 묘사하였으며, 『水滸傳』은 官界의 腐敗와 압정에 맞선 관리나 농민의 처세술을 묘사했다. 『金瓶梅』는 『수호전』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一夫多妻의 제도 위에서 부호의 처첩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그리고 『西遊記』는 菩薩道を 확립하기 위해서 求法巡禮 여행에 나선 수행자의 모습을 과격적인 표현으로 그려냈다.

그런데 중국 문학의 한 부분을 대표하는 奇書들은 문학형식으로 보자면 ‘소설’이라고 불리우는 장르인데, 사대부들은 이 장르를 표면적으로 문학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金瓶梅』를 제외하고는 이 奇書들은 긴 세월동안 讀書人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처음으로 생동

---

\* 이 글은 현재 日本의 富山大學에 재직중인 磯部 彰(이소베 아끼라)의 『《西遊記》形成史の研究』(創文社, 1993年)의 序章을 번역한 것이다. 이 논문의 번역에 있어서 書名과 論文 제목이 日語로 되어 있는 경우, 각주에서는 우리말로 옮기지 않고 日語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생.

감 있는 장편소설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西遊記』는 긴 세월에 걸쳐서 형성되고 유포된 만큼 그것이 世人들로 부터 주목을 받아온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존하는 宋代의 『大唐三藏取經詩話』부터 明後期の 世德堂刊本 『西遊記』(新刻出像官板大字西遊記), 清初의 『西遊證道書』까지 여러 가지 다른 텍스트는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世德堂本에서 보이는 특색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西遊記』의 형성사를 보건대 世德堂刊本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이것들을 대표하는 판본으로 보인다.

이제 世德堂刊本 『西遊記』를 읽어서 느껴지는 특색을 들면 첫째, 작품 전반을 통해서 주제가 확실히 부각되었다는 점이며, 둘째, 독자로 하여금 작품에 대해서 싫증을 느끼지 않으면서 계속 읽을 수 있게 하는 문학적인 취향이 있다는 점이다. 먼저 『西遊記』의 주제를 몇 마디로 줄여 보자면 觀音의 福德을 믿는 수행자가 신앙심을 근거로 번뇌를 깨뜨려서 悟道覺醒의 彼岸에 도달하는 것으로서, 이런 정신수양의 과정을 일상적인 것에서 혹은 구체적인 사건을 빌어서 말하는 것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여겨진다. 또 문학적 취향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설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관심을 가진 독자의 이런저런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西遊記』의 독창적인 취향이 드러난다. 즉 사람들은 하나의 소설 테마에서 여러 가지 측면의 ‘흥미’를 느꼈다고 여겨진다.

## II. 中國의 研究 成果

여러 사람들에게 꿈 혹은 희망, 경탄, 재미를 주었던 『西遊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많은 지혜와 창의력이 필요했다. 이 『西遊記』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혹은 완성 후의 유포 상황에 대

해서는 과거에 많은 검토가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제 지금까지 연구의 족적을 살펴보자.

중국에서 『西遊記』 연구의 발단은 청대 考證學의 여파로 일어났다. 丁晏은 『西遊記』를 淮安의 吳承恩의 작품이라고 고증을 시작하였으며, 紀昀은 소설 중의 官制가 明代의 것이기 때문에 명대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洪亮吉은 그들의 설을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증명하려고 했지만 흥미 분위로 치우쳤다. 그러던 중 辛亥革命을 전후로 해서 외국 소설이 소개되고, 梁啓超가 소설효용론을 제창하였으며, 더욱이 ‘文學革命’을 제창하게 되면서 중국 소설 연구는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 아래서 蔣瑞藻가 개별적인 소설, 희곡에 관련된 자료를 수록한 『小說考證』을 펴냈는데 『西遊記』에 한정된 자료집은 아니며 결점도 있지만,<sup>1)</sup> 다른 면에서는 ‘소설사 출현을 위한 전제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錢靜方的 『小說叢考』, 魯迅의 『小說舊聞鈔』, 孔另境的 『中國小說史料』가 생겨나는 계기를 만들었다.<sup>2)</sup> 蔣瑞藻 이후로 『大唐三藏取經詩話』·『新雕大唐三藏法師取經記』의 影印과 관련해서 王國維는 『夢梁錄』 卷153)에 기술된 杭州의 『張官人經史子集文籍鋪』<sup>4)</sup>이라는 간행물을 직접 보았으며, 이어서 羅振玉은 影印本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唐三藏取經詩話』를 제공하였다.<sup>5)</sup>

한편으로 蔣瑞藻가 시도했던 바와 같은 소설 자료 수집 작업은 魯迅의 『中國小說史略』<sup>6)</sup>에 의해 소설사의 체계를 만드는 중에 『小說舊聞鈔』(1924年)라는 형태로 계승되었다. 전자는 소설 연구사상 획기적인 일이며 후자의 연구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쳤다. 『西遊記』 연구는 『中國小說史略』에서 시작

1) 『小說考證』 1984年版 重印說明.

2) 佐藤一郎·伊藤漱平 두 사람의 「近世小説の研究と資料」(『中國の八大小説』, 平凡社, 1965年)에 이러한 설명이 나와 있다.

3) 卷13의 誤記임(筆者注).

4) 『張官人諸史子集文籍鋪』의 誤記(筆者注).

5) 丙辰. 즉 民國五年, 1916年.

6) 1923·1924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가운데 『大唐三藏取經詩話』가 宋版인가 元版인가(第一三篇 「宋元之擬話本」), 楊志和의 『西遊記傳』이후에 百回本 『西遊記』가 나왔는가, 작자는 吳承恩인가 하는 등의 문제는 오늘날까지 論爭 중에 있으며, 또한 이 시기에 淸刊의 여러 판본과 『後西遊記』등의 속판본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胡適은 『西遊記』의 종합적인 연구에 착수하면서 『西遊記考證』<sup>7)</sup>을 발표하였다. 胡適의 고증에서는 『西遊記』의 원전을 『大慈恩寺三藏法師傳』과 『大唐西域記』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것이 신화화의 과정을 거치고 心經의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허구화되면서 『大唐三藏取經詩話』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取經詩話는 세 가지 점 - 猴行者·深沙神·妖怪와의 災難 - 에 주목하였으며 이것이 나중의 『西遊記』와 관련되는 점이라고 보았다. 또한 원숭이 왕의 등장에 대해서는 홀스타인<sup>8)</sup>이 지적한 『라마야나』<sup>9)</sup>의 하누만의 영향이 있다고 보았다. 작자에 대해서는 『小說考證』의 서술을 근거로 吳承恩이라고 여기고,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에는 ‘玩世主義’가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胡適은 이밖에도 四遊記本の 楊致和編本에 대해서 논한 「跋四遊記本の西遊記傳」을 쓰고, 寧夏에서 출토된 『鎖釋眞空寶卷』의 연대와 그 속에 기록된 『西遊記』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한 「跋鎖釋眞空寶卷」 등을 발표하여 『西遊記』 연구 논쟁에 불씨를 당겼다.

胡適의 여러 논문, 특히 『鎖釋眞空寶卷』에 관한 논문에 대해 俞平伯은 그의 비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비판하면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였다.<sup>10)</sup> 俞平

7) 『讀書雜誌』 第六期, 1931年.

8) (역자주) Baron A.von steal Holstein

9) (역자주) 印度 最高の 敍事詩로서 약 2,500년 전의 작품이다. 내용은 라마(Rama)가 자신의 부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원숭이 나라의 대장인 하누만(Hanuman)의 도움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 작품과 『西遊記』와의 연관성은 하누만이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공중을 날고 몸을 부풀릴 수 있다는 점이다.

10) 「駁〈跋鎖釋眞空寶卷〉」, 『文學』 第一號, 1933年.

伯은 胡適이 『鎖釋眞空寶卷』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明末의 작품이라는 ‘先入觀’을 연구의 전제로 둔 점을 비판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선입관을 증명하려는 엉성한 조사를 증거로 삼은 점과 吳承恩의 소설 『西遊記』로부터 寶卷이 나왔다는 고정된 도식을 대전제로 삼아서 논의를 진행시킨 연구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胡適이 논거로 든 寶卷과 小說, 雜劇 『西遊記』의 비교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보권의 滅法國, 火龍, 戲世洞 등의 예증을 들어 胡適이 자기 견해의 불합리한 점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淮安府志』의 기술을 부분적으로 소설 『西遊記』와 연결시켜 작가를 吳承恩으로 여긴 통설에 의혹을 던졌다. 즉 俞平伯은 世德堂刊本에 吳承恩의 이름이 아닌 ‘華陽洞天主人校’로 기술된 점, 또한 ‘陳元之 序’에 ‘今之天潢’·‘王’·‘八公之徒’라는 기술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吳承恩을 소설 『西遊記』의 작자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고, 결과적으로 胡適의 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鎖釋眞空寶卷』의 내용과 그것이 宋元刻本 西夏文書와 같은 시기임을 고려할 때 연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俞平伯의 胡適 비판이 사그러들 무렵, 鄭振鐸이 또한 胡適 등의 『西遊記』 연구 비판에 가세해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作者, 版本<sup>11)</sup>, 內容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었다.<sup>12)</sup>

11) (역자주) 『西遊記』의 판본 문제가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시기와 함께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宋代의 『大唐三藏取經詩話』가 있으며, 元代에는 『朴通事諺解』, 『鎖釋眞空寶卷』에 나타나는 『西遊記』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만 이 시기의 『西遊記』는 학자들의 假定일 뿐이지 그것의 확실한 모습은 알 수 없다. 그리고 明代에는 吳承恩百回本 『西遊記』, 朱鼎臣編本 『唐三藏西遊釋厄傳』, 楊致和編本 『西遊記傳』의 세 판본의 선후문제가 판본 문제에 있어서의 쟁점이 되고 있다. 清代에는 『西遊證道書』가 중요한 『西遊記』 관계 판본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글에 등장하는 ‘王府本’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은 假定本이다.

12) ‘西遊記的演化’, 『文學』第一卷 四號, 1933年.

鄭振鐸은 北平圖書館이 일본의 村口書店에서 구입한 두 종류의 明版『西遊記』- 世德堂刊本・朱鼎臣編本 -을 조사하면서 孫楷第의『中國通俗小說書目』을 참조한 결과, 여러 책 가운데 世德堂刊本이 가장 오래된 판본이라고 주장했으며, 「陳元之 序」에 근거한 華陽洞天主人에 대해서는 吳承恩의 손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出今天潢何侯王之國」이라고 기재된 점에 관심을 두었다. 이럴 즈음에 北平圖書館에서『永樂大典』에「魏徵夢斬涇河龍」條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孫楷第로부터 全文을 복사해서 손에 넣은 鄭振鐸은『西遊記』가 元末의 것이라고 여기고서,『西遊記』의 유래는 魯迅이 말한 楊致和編本, 吳承恩本の 순서가 아니며, 胡適이 魯迅의 학설을 비판한 것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취할 만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는 吳承恩本の 선행본이 있다는 魯迅의 주장을 인정해서 그것의 祖本을『永樂大典』本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즉 朱鼎臣編本の 출현으로 인해서 楊致和編本이 省略本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는데, 楊致和編本은 閩南의 余象斗의 刻板으로 嘉慶版 四遊記本은 그것을 다시 새긴 판본이다. 그런데 嘉慶版을 다시 새길 때에 余氏는 원각본에 있는 石猴의 탄생 장면 등이 빠진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다시 새긴 것이다. 그런데 鄭振鐸은 胡適이 말한 楊致和에 의해 생략된 ‘吳承恩本の 부분’이 남겨진 舊鈔本楊致和編本을 본 적이 있어서 그것을 높은 가격에 사려고 하였으나 행방을 알 수 없어 다시는 볼 수 없었으며, 이런 관계로 자신의 학설을 보강하기 위해 여러 가지 證據를 덧붙였다고 한다.<sup>13)</sup>

13) 魯迅이후의 中國의 研究概要에 대해서는 今村與志雄氏가 번역한『中國小說史略』의「譯注」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또 魯迅・胡適・鄭振鐸의 ‘情’을 수반한 연구환경에 대해서는 역시 今村與志雄氏의《解說》「『中國小說史略』について」・「『漢文學史綱要』について」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 이상은 學習研究社版『魯迅全集』第一一卷(1986)에 수록되어 있다. 今村氏의 역주 자체, 譯文・解説은 모두가 중국소설연구사를 알 수 있는 精緻한 설명이 돋보여서 名譯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다.

鄭振鐸은 『永樂大典』本과 吳承恩本の 순서를 정한 후에 朱鼎臣·楊致和本의 자리매김을 시작하였는데, 먼저 朱鼎臣編本에 대해서는 版式으로 볼 때 隆慶<sup>14)</sup>·萬曆<sup>15)</sup> 시기에 나온 것이며, 吳承恩本을 근원으로 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확정지었다. 그러나 卷四의 陳光蕊 이야기는 吳承恩本에는 없는 것인데 朱鼎臣이 吳昌齡西遊記雜劇<sup>16)</sup>으로부터 소재를 취해서 보충한 것으로 문체가 吳承恩本과 전혀 다르다. 반대로 袁守誠妙算<sup>17)</sup>의 단락은 吳承恩本과 완전히 같은데 『永樂大典』本에는 없는 것이다. 吳承恩이 『永樂大典』本을 확대해서 새로 『西遊記』를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朱鼎臣編本은 吳承恩本の 省略本임은 명확한 것이다. 다음으로 鄭振鐸은 朱鼎臣編本이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卷九,十을 생략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한편으로 楊致和編本은 朱鼎臣의 실패를 보고서 朱鼎臣編本과 吳承恩本을 병용하여 省略本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이렇게 吳承恩本·朱鼎臣編本·楊致和編本으로 판본의 연대를 도식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런데 판본의 계통을 세우는데 드러나는 문제점은 陳光蕊 이야기의 유무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鄭振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陳光蕊 이야기는 『永樂大典』本 혹은 吳承恩本에는 없는데 朱鼎臣이 吳承恩本을 생략할 때에 戲曲으로부터 취한 것으로 一卷 八則의 이야기를 보충하였다. 그런데 淸初의 汪懋漪가 『西遊證道書』를 편찬할 때에 朱鼎臣編本에서 陳光蕊 이야기를 빼껴 넣었는데, 이 이야기는 吳承恩本の 第九三回에 있었던 흔적이 있다. 이야기의 구성에 대해서는 胡適의 구분을 받아들여서 세 개의 원래 독립적인 요소부터 성립되었다고 하는데 吳承恩本에 陳光蕊 이야기를 넣는다면 단락이 네 개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첫째 요소는 孫悟空 단락으로 孫悟空의 출신 문제를 언급한

14) (역자주) 明代 穆宗의 연호이다.(1567-1572)

15) (역자주) 明代 神宗의 연호이다.(1573-1627)

16) 이것은 楊東來批評本이다.(筆者注)

17) (역자주) 朱鼎臣編本の 卷五에 「袁守誠妙算無私曲」이 있고, 吳承恩本の 第九回에 똑같은 回目이 있다.

것인데, 猴行者의 신분은 하누만과 비슷하다고 보고서, 孫悟空을 하누만의 화신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단락은 唐太宗 단락으로 唐太宗 入冥譚<sup>18)</sup>은 『永樂大典』本에 있다가 『西遊記』에 들어온 것이며, 魏文帝入冥譚을 취급한 『冥司語錄』이 內閣文庫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단락은 西遊 단락인데 『大唐三藏取經詩話』와 吳承恩本의 격차가 큰 점, 『吳昌齡雜劇西遊記』는 吳承恩本과 가까우나 무대라는 제한이 있어서 내용이 적으며 取經詩話에서 보이는 변화막춤의 모습이 없는 점으로 성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陳光蕊 이야기는 『齊東野語』<sup>19)</sup>의 서술에 근거하지 않았을까 하고 지적하였다.

鄭振鐸이 학설을 제시한 데에는 孫楷第의 연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孫楷第는 白話小說·戲曲 등의 다방면에서 소설의 판본을 정리하였다. 『日本東京所見(中國)小說書目提要·大連圖書館所見小說書目提要(1932年)』, 『中國通俗小說書目』(1933年)은 참으로 빛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西遊記』 연구에서도 소설 판본의 전모를 명확히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西遊記劇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없었는데, 孫楷第는 日本에서 발견된 『楊東來先生批評西遊記』가 明初의 楊景賢의 작품이라고 인정하였다.<sup>20)</sup> 孫楷第는 傳奇 四十種本の 『西遊記』 雜劇을 吳昌齡이 선별했다는 점에 의혹을 품고, 天一閣藍格寫本 『正·續錄鬼簿』에 기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萬壑清音』 卷四의 『西遊記』 四折 가운데 두 절인-『回回迎僧』·『諸侯餞別』-이 元의 吳昌齡劇의 殘折이라고 하였으나, 남은 두 절은 『楊東來先生批評西遊記』의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楊東來先生批評西遊記』는 明·清代 사람인 吳昌齡이 지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錄鬼簿續編』에 따르면 楊景賢이 쓴 『西遊記』가 있다고

18) (역자주) 唐太宗 入冥譚은 吳承恩本 『西遊記』의 第十回 「唐太宗地府還魂」에 나온다.

19) (역자주) 『齊東野語』는 南宋 周密이 撰하였다고 한다. 筆記 類이며 20卷이다. 책의 내용은 南宋 朝廷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20) 「吳昌齡與雜劇西遊記」, 『輔仁學誌』 第八 卷一期, 1939年.



했다. 또한 徐乾學傳是樓의 鈔本 『詞話』에 楊景夏의 玄奘取經 第四出이 나오는데 이것은 楊東來批評本과 같은 것으로 楊景賢의 작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孫楷第의 분석은 자료에 바탕하여 학설을 제시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 Ⅲ. 日本의 『西遊記』 연구

중국의 『西遊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일본이었다.

일본의 『西遊記』나 『唐三藏西天取經』의 연구는 이른 시기까지 올라가는데, 江戸時代 末期에 두 문인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瀧澤馬琴과 岳亭丘山(八島斧吉)이다.

瀧澤馬琴은 『西遊記』의 독자로 자처하였으며, 明刊本과 清刊本の 차이-陳光蕊江流和尚 이야기의 유무 등-나, 清刊本の 悟一子の 비평이 가진 성격-悟道の 覺醒을 환기한 점-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視野를 확장하였다. 『西遊記』의 여러 판본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眼目は 알다시피 文化<sup>21)</sup> 三年(1806年)에 간행되었던 『畫本西遊全傳』의 序文에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明刊本の 「秣陵 陳元之·刊西遊記序」를 취급하면서 清刊本에 있는 元·虞集序와 清·尤侗序 등을 채용하지 않은 점이 두드러진다.

다른 한편으로 岳亭丘山은 손오공의 형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sup>22)</sup>

“내가 僧인 祖父와 崎陽에 있을 때 華人에게 들은 일이 있다. 唐나라 땅의 黃淮가 합류하는 곳에 淮水의 神인 無支祈라고 불리우는 자가 있는데 모습은 원숭이와 같고, 높은 이마, 긴 코, 청색의 몸에 하얀 눈알이 타오르는 듯하다. …… (中略, 筆者) …… 『西遊記』의 손오공은 이 無支祈를 근원으로 하고 三藏

21) (역자주) 光格 天皇의 연호이다.(1804-1817)

22) 『通俗西遊記』五編「附言」.

의 西域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丘山은 조부가 華人에게 들은 말을 참고로 해서 손오공은 無支祈가 모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소설 『西遊記』는 그 안에 玄奘三藏의 見聞記가 있기 때문에 『大唐西域記』를 포함한 작품으로 보았다. 후에 중국의 魯迅이 손오공의 無支祈起源說을 제시한 것보다 약 100년이 앞선 것이다.

그러나 馬琴이나 丘山은 당시에 예외적인 인물이었으며, 그후에 다른 관점에서 『西遊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다.

明治<sup>23)</sup>시대는 『西遊記』의 이름이 점차로 알려지던 시기로 다시금 『西遊記』에 눈을 돌리게 되었으니, 棘樹散人 으로 불리는 赤松光映은 江戸 末期에 『西遊記』를 읽었고, 오십여 년 후인 明治 21년에 다시 한 번 읽으면서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西遊記骨目』이라는 책을 냈는데, 전부 三五條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 가운데 중요한 것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西遊記』의 의도는 唯識玄妙를 얻으려는 데에 있으니 慈恩大師의 문하에 있는 자의 여행이다. 주인공인 玄奘三藏과 孫悟空은 大般若經의 정신의 측면에서 존재하는 데 반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妖怪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六賊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妖怪’의 등장으로 책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西遊記』는 三國志演義의 취향과 비슷한 점도 보이지만 전자가 ‘般若’의 사상이라면 후자는 儒道의 사상에 기반해서 구성되었다. 『西遊記』에 보이는 ‘烏巢禪師’나 寇員外의 이야기는 ‘原作’이 후인의 손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필력이 약화되었다.”

赤松光映은 天臺座主가 되어서 延曆寺에 살았는데 天海舊藏본인 『唐僧西遊記』등을 손에 넣어서 읽었는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明治 38年(1905년)에 당시의 언론가인 德富猪一郎(蘇峰)은 村幸書店에서 『新雕大唐三藏法師取經記』를 발견, 구입하여 이것을 宋版으로 단언하였다. 그리고 羅振玉에게 『吉石齋叢書』를 빌려서 이 책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도록

23) (역자주) 明治天皇의 연호이다.(1868-1911)

록 하였다. 徳富蘇峰은 이 책을 三浦將軍이 소장한 『大唐三藏取經詩話』와 대조하였고, 「高山寺書目」에 해당하는 이 책의 서지학적인 해설을 시도하였다.<sup>24)</sup> 또한 蘇峰의 발언과 함께 그 시기에 주목할 만한 견해를 발표한 南方熊楠을 빠뜨릴 수 없다.

南方熊楠의 뇌리에는 『西遊記』가 있었으니, 十二支의 동물을 연구하면서 원숭이를 취급하는 가운데 『西遊記』의 손오공이 『라마야나』의 ‘하누만전에 서 온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유사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라마야나』 이야기의 연구, 그리고 그 이야기가 중국, 일본에 수용되는 상황을 연구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다.<sup>25)</sup>

大正<sup>26)</sup>末이 되자 『大唐三藏取經詩話』와 나란히 『傳奇四十種』本の 『楊東來先生批評西遊記』가 발견 되었는데 이것은 내외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楊東來先生批評西遊記』에 일찍 눈을 두고 書誌的 소개를 한 이는 長澤規矩也<sup>27)</sup>이다. 그리고 이책을 排印하여 江湖에 소개한 이는 鹽谷溫<sup>28)</sup>이다. 이 책은 元의 吳昌齡劇本으로 여겨졌으나, 후에 孫楷第에 의해 明初의 楊景賢의 작품으로 밝혀진 점은 앞에서 기술하였다

長澤規矩也가 조사하여 그 가치를 재인식시켜 세상에 알린 白話小説・戯曲 등은 다수인데, 『西遊記』에 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楊東來先生批評西遊記』뿐만 아니라 內閣文庫에 소장된 『李卓吾先生批評西遊記』・清白堂刊, 宮內廳書陵部(當時, 圖書寮)所藏 『李卓吾批評本』, 高崎大河內家が 시장에 내놓은 世德堂刊『西遊記』・朱鼎臣編本에 대해 서지적인 소개를 하는 한편, 朱鼎臣編本을 ‘小説西遊記의 藍本’으로 자리매김했다.<sup>29)</sup> 다른 한편으로 『大唐

24) 「大唐三藏取經記」, 『典籍清話』, 1932年. 「玄奘三藏の上表記に就て」, 『愛書五十年』, 1933年. 「<大唐三藏取經記>發掘しの記」, 『讀書九十年』, 1952年.

25) 「猴に關する民俗と傳説」, 『太陽』二六卷一・二・五・一三・一四, 1920年.

「古き和漢書に見えたるラ-マ王物語」, 『考古學雜誌』四卷 一二號, 1914年.

26) (역자주) 大正 天皇의 연호이다.(1912-1925)

27) 「傳奇四十種と小説三十種」, 『斯文』第八編 第七號, 1926年.

28) 『襍劇西遊記』, 1928年.

三藏取經詩話』 등에 대한 書誌的인 고찰을 하면서 『大唐三藏取經詩話』·『新雕大唐三藏法師取經記』가 宋版本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래서 두 판본을 비교해서 차이를 찾아, 잘못이 적은 후자가 원작에 가깝고, 전자는 그것을 巾箱本으로 다시 새긴 작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입장에서 일찍 출판된 坊刻本에서 두 종류가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덧붙였다.<sup>30)</sup> 한편 『昇平寶筏』의 鈔本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다.<sup>31)</sup> 그리고 終戰 後에는 日光의 慈眼堂天海舊藏書를 조사해서 世德堂刊本『西遊記』·『唐僧西遊記』·朱鼎臣編本の 세 종류에 대해 書誌的인 소개를 하였다.<sup>32)</sup>

明治末로부터 大正에 걸쳐서 스타인이나 페리오 등이 敦煌에서 未知의 古文書를 발견하여 동양학 연구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 이 때 북경에 파견되었던 狩野直喜는 敦煌 變文 「唐太宗入冥記」와 『西遊記』의 관련을 일찍이 언급하였다.<sup>33)</sup> 狩野直喜와 함께 白話文學을 연구하던 倉石武四郎은 陳光蕊江流和尚 이야기의 성립에 대해서 고찰하였는데, 倉石氏는 아이를 버리는 이야기의 근원은 『太平廣記』 卷一二二의 「乾臍子」에 보이는 陳義郎 이야기에 있다고 하면서 元代的 「相國寺公孫合汗衫」 雜劇(元曲選)이 이것을 계승하였다고 했다. 한편 『西遊記』의 江流和尚 이야기에 대해서 그는 徐文長이 소개한 南戲 「陳光蕊江流和尚」의 殘文인 『南九宮譜』·『九宮大成南北宮詞譜』에 대해서 이것이 玄奘棄兒의 이야기와 연관이 깊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吳承恩의 『西遊記』는 오래된 『大唐三藏取經詩話』에 보이는 癡那의 이야기에 이미 萌芽的인 요소가 있었고 合汗衫雜劇과 함께 玄奘棄兒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吳承恩以前의 『西遊記』’를 상정하였다.<sup>34)</sup> 그런 후에 合汗衫雜劇과 「陳光蕊江流和尚」 이야기의 유사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후자

29) 「日本に傳はつてゐる支那の戲曲小説」, 『鴿笛』 第一年 八號, 1929年.

30) 「大唐三藏法師取經記と大唐三藏取經詩話」, 『書誌學』 一三-六, 1939年.

31) 「蟲魚漫言」, 『斯文』 一二 卷一, 1930年.

32) 『日光山「天海藏」主要古書解題』, 1966年.

33) 「支那俗文學史の研究材料」, 『支那學』 一-三, 1920年.

34) 「棄兒の三藏」, 『佛教研究』 第五卷 三・四號, 1924年.

가 또한 「陳巡檢梅嶺失妻記」와 관련이 있음을 서술하면서, 양자의 선후관계를 말하였다.<sup>35)</sup>

長澤規矩也가 서고에서 『西遊記』 版本을 발굴할 때에 만주의 유적에서 『西遊記』 이야기를 발굴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鳥居龍藏이다. 그는 舊滿洲 遼陽縣에 있는 遼代의 묘에서 벽면에 ‘구름위의 猴王(孫吳空)’과 ‘합장하는 玄奘三藏’ 등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鳥居龍藏은 畫象石 삼면이 宋刊의 『大唐三藏取經詩話』의 기사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遼代의 唐三藏 이야기의 제일차적인 자료라고 평가하고, 拓影을 함께 실었다.<sup>36)</sup> 筆者는 처음에 게재된 拓影이 선명하지 않고 문자 자료가 없는 점에서 鳥居龍藏의 견해에 의문을 품었다. 그러다가 최근 安西의 榆林窟에서 ‘玄奘取經壁畫’가 발견되었고 ‘사자를 탄 玄奘三藏’ 등이 나타남에 따라서 鳥居說에 대해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IV. 戰後の『西遊記』연구 현황

戰後『西遊記』의 연구는 ‘완전히’ 출발하였다.

小川環樹는 『西遊記』 成立史의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작품을 보면서 ‘작자의 의도’를 찾아내려고 하였다.<sup>37)</sup>

小川氏는 『朴通事諺解』 『唐三藏西遊記』에서 元代의 古本 『西遊記』가 나왔으며, 宋代에 여러 방향으로 발전을 거친 후, 명대에 들어서 吳承恩이 元代의 古本을 개작하면서 손오공을 ‘野人’ 유형의 주인공으로 고쳐서 묘사했고, 豬八戒에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三國演義』에 나타나는 자연인의 유형과

35) 『中國文學講話』, 1968年.

36) 「西遊記圖像を彫刻せる畫像石」, 『寶雲』第一一, 1935年.

37) 「『西遊記』原本とその改作」, 『中國小説史の研究』, 1968年.

보조를 맞추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손오공의 경우는 중국에 신통력을 가진 원숭이라는 전설이 적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인도의 『라마야나』의 하누만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小川環樹가 吳承恩의 문학관을 『西遊記』의 내용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을 즈음에 田中巖은 이런 기반 위에서 作者·版本의 문제를 연구하였다. 「西遊記의 작자」<sup>38)</sup>에서 그는 魯迅·胡適·鄭振鐸이 시인한 吳承恩 作家說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田中氏는 小說 『西遊記』의 작자를 明末의 인물로 삼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며, 吳承恩 作家說이 『淮安府志』의 기술이나 吳承恩의 성격을 근거로 그를 작가로 규정하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陳元之는 吳承恩과 同時期의 사람인데도 작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한 것도 문제이므로, 작가는 明代의 無名氏라고 결론지었다. 다른 한편으로 「西遊記의 傳本」<sup>39)</sup>에서는 長澤規矩也나 孫楷第의 연구를 참조하여 明刊本인 여러 판본을 書誌學的으로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朱鼎臣編本이 ‘明代刊本の 祖本’이라고 말한 長澤規矩也의 초기 주장을 지지하는 한편 清白堂刊本에 들어 있는 陳元之의 序에 나타난 착오를 지적하고 그것을 다시 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田中氏의 판본 소개에는 약간의 잘못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鳥居久靖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 鳥居久靖은 일본에서의 『西遊記』의 수용 역사를 고찰하면서 江戸期의 『通俗西遊記』부터 明治의 河竹新七이 지은 「通俗西遊記-西梁女國」劇, 大正·昭和의 譯本·創作, 兒童文學의 『西遊記』까지 書誌적인 소개<sup>40)</sup>를 하였다. 그리고 天理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世德堂刊本과 李卓吾批評本을 대조하면서 판본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혔으며,<sup>41)</sup> 종전의 연구 논문 목록을 작성하였다.<sup>42)</sup>

38) 「西遊記の作者」, 『斯文』復刊八號, 1953年.

39) 「西遊記の傳本」, 『橫濱大學論叢』第八-三, 1957年.

40) 「わか國に於ける西遊記の流行-書誌的に見たる」, 『天理大學學報』七卷 二號, 1955年.

41) 「天理圖書館藏<新刻出像官板大字西遊記>覚え書」, 『ビブリア』一二號, 1958

1950년대말부터 1960년대 전반에 걸쳐서 국내외적으로 『西遊記』와 관련된 여러 작품의 연구가 百家爭鳴式으로 분출되었다. 이 중에 하나의 계기를 이룬 것은 世德堂刊本을 주로 한 『西遊記』(作家出版社, 1954年)와 『大唐三藏取經詩話』(文學古籍刊行社, 1955年)의 영인본이 간행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희귀본을 손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도 성립사에서 문학론까지 언급한 여러 논의가 이 시기에 雨後竹筍처럼 발표되었다. 주요한 것으로는 작가출판사에서 나온 『西遊記研究論文集』(1957年)에 수록된 것들인데, 이것의 大要는 齋藤秋男·伊藤敬一 두 사람에 의해 정리되었다.<sup>43)</sup> 이 논문집 중에서 嚴敦易는 吳昌齡의 「唐三藏西天取經」劇이 小說 『西遊記』가 어떤 연관 관계를 갖는지, 楊景言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楊東來先生批評西遊記』가 과연 楊景言의 원본 그대로인가 하는 점에 의문을 품었는데, 먼저 吳承恩本이 완성된 후에 世德堂刊本이 간행되었으며, 소설 『西遊記』에 근거하여 楊景言의 원작 一本 四折이 五本 二十折로 보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sup>44)</sup> 黃肅秋氏는 世德堂刊本을 중심으로 作家出版社版 『西遊記』의 정리·교정 작업을 하면서 吳承恩本에 陳光蕊江流和尚 이야기가 실려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世德堂刊本에서 예증을 들면서 吳承恩本의 존재에서는 孫楷第가 지적한 대로 “唐僧을 侮辱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sup>45)</sup> 이 시기에 발표된 趙景深의 『江流記』를 중심으로 한 「陳光蕊江流和尚」이야기의 연구<sup>46)</sup>도 주목을 받았다.

日本에서는 『大唐三藏取經詩話』에 대해서 小川貫弑의 연구와 志村良治의 譯註가 이루어지는 한편 太田辰夫는 『朴通事諺解』에서 보이는 『西遊記』에 관한 연구를 행하였다. 1960년에는 太田辰夫·鳥居久靖의 共譯으로 『西遊

年.

42) 「西遊記研究論文目錄」, 『天理大學學報』八卷二, 1960年.

43) 「西遊記の研究と資料」, 『中國の八大小説』, 1965年.

44) 「『西遊記』和古典戲曲的關係」, 『文學書刊介紹』第八期, 1954年.

45) 「論『西遊記』의 第九回問題」.

46) 『元明南戲攷略』, 1957年.

記』(平凡社・中國古典文學全集)가 나왔다. 이것에 의해서 『西遊真詮』의 전체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게 되었으니 讀書史・研究史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澤田瑞穂의 「唐三藏의 出生說話」<sup>47)</sup>도 이때에 발표되었는데 漂着神 信仰에 근거를 둔 새로운 視點으로 江流說話의 成立을 해석하면서 陳光蕊江流和尚 이야기 연구에 파문을 던졌다. 澤田氏는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요한 모티프에 착안하여 江流和尚 이야기는 漂着神 信仰(靈童貴子漂流談의 한 변형)을 기반으로 金山寺<sup>48)</sup>의 宣傳用 靈驗記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절의 別峰長在禪師(俗姓陳氏)에 출생 설화가 끼여들고 玄奘三藏의 이야기가 붙어서 唐三藏의 出生談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陳光蕊의 江上遭難譚도 金山寺의 龍王廟나 水陸齋會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金山龍王이나 水陸會의 공덕을 말하는 金山寺의 靈驗談이 唐三藏과 인연을 맺어서 『西遊記』에 섭취되었다고 한다.<sup>49)</sup>

內田道夫는 불교 설화가 『西遊記』 성립의 배경을 이루고 있으며, 『西遊記』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요소는 三藏法師의 西天取經說話와 『佛說師子月佛本生經』에 보이는 원숭이의 세계에 전세의 인연을 가진 師子月如來의 이야기라고 주장하였다. 內田道夫는 원숭이가 取經事業에 협력을 하는 배경에는 六道輪廻思想이 있으므로 『라마야나』가 손오공설화의 모태라는 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sup>50)</sup>

47) 「唐三藏の出生說話」, 『福井博士頌壽記念東洋思想論集』, 1960年.

48) (역자주) 金山寺江流傳說的 중요한 이야기의 모티프는 (1)江上遭難 (2)幼兒漂着 (3)金山出家 (4)龍王救命 (5)報仇團圓 이다.

49) 澤田瑞穂는 그외에 서유기에 관련되는 다른 연구를 하였는데 李翠蓮故事的 演變史(『中國文學研究』第三號, 1977), 「孫悟空神の話」(同上 第五號, 1979) 등이 있다. 이밖에도 羅祖의 「五部六冊」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寶卷의 연구(『增補寶卷の研究』), 그리고 釋教劇의 연구(『佛教と中國文學』), 또한 大鼓書의 연구(『天理大學學報』三四・三六・三七) 등을 비롯해서 『西遊記』에 관계되는 주변의 연구를 행했는데, 『西遊記』의 연구에 도움을 준 점이 적지 않다.

50) 「西遊記の成立について-佛教說話を中心に」, 『文化』第二七卷, 1963年.



澤田瑞穂의 연구와 荒井健의 연구<sup>51)</sup>는 『西遊記』연구의 새로운 轉機를 만들었다. 또한 奥野信太郎의 「물과 불의 傳承-西遊記成立의 한 측면」<sup>52)</sup>은 더욱 새로운 방향으로 『西遊記』의 성립을 해석하려는 시도였다. 奥野氏는 오늘날 『西遊記』를 보면 『大唐三藏取經詩話』이래의 取經 이야기와는 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고, 이것은 鍛冶職 길드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물의 精’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후에 다시 좋은 세계로 돌아가는 다른 계통의 이야기가 雜劇『西遊記』에서 取經 이야기와 복합되어 오늘날의 『西遊記』에 도달했다고 보면서, 『西遊記』를 重層的인 구조로 설명했다. 이 시기의 연구는 奥野氏의 學說에서 보이는 것처럼 논의에 있어서 흥미진진한 면이 보이지만 근거가 약한 것이 난점이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中國에는 대약진정책 이후의 농촌의 황폐, 지도층 내부의 배격거림, 그리고 文化大革命의 개시에 따른 대변동으로 『西遊記』연구도 겉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사회적 모순이 분출되는 큰 변동기를 맞고 있었지만, 『西遊記』연구는 이런 역사적인 단계에서도 영국·일본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959년에 太田辰夫는 「朴通事諺解所引西遊記考」<sup>53)</sup>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일련의 『西遊記』關係 研究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豐田穰·小川環樹에 의해 소개·연구된 것을 수용하면서 「朴通事諺解」에서 인용한 ‘原本’ 『西遊記』를 이야기의 순서대로 복원하였으며, 또한 明刊本 등과의 차이를 밝혔다. 그리고 최초의 原本 이야기 순서는 釋尊이 三藏經을 지었다는 것이 선행하였고, 孫悟空은 중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내용에도 明本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볼 때 孫悟空은 「陳巡檢梅嶺失妻記」와 깊은 관계를 갖는 존재로서 잔인성과 호색성을 잃지 않은 야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송대의 猴行者나 明代의 悟空像과

51) 「西遊記のなかの西遊記」, 『東方學報』第三六冊, 1964年.

52) 「水と炎の傳承-西遊記成立の一側面」, 『日本中國學會報』一八集, 1966年.

53) 『神戸外大論叢』, 第10卷 2號.

는 약간의 간격이 있는 존재라고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悟空 이외의 제자 두 명과 三藏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元本은 楊景賢의 雜劇(雜劇『西遊記』)과 같은 모양의 沙和尚, 朱八戒의 순으로 등장하는데, 豬八戒의 근원은 陳寅恪이 말한 佛典에 강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으며, 元本에는 陳光蕊의 이야기가 없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朱鼎臣編本에 의거한 『西遊釋厄傳』에는 陳光蕊의 이야기가 있으며, 元本 『西遊記』(북방)와 明代の 『古本西遊釋厄傳』(남방)은 시대나 제작 지역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元本은 『永樂大典』에서 인용한 『西遊記』와는 같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朴通事諺解』의 師陀國 이하의 항목을 明本과 비교하여 元本の 특징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車遲國’을 비교 대비하여 明本の 발전된 점을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宋本에서 明刊의 여러 판본에 이르기까지는 세 개의 텍스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朴通事諺解』에 보이는 ‘元本’ 『西遊記』 연구 이후에 『中國古典文學全集』의 『西遊記』(平凡社, 1960年), 四大奇書版의 『西遊記』(同上, 1963年)가 나왔을 때, 太田氏は 鳥居久靖과 함께 상세한 해설을 붙였다. 이 시기의 太田氏의 『西遊記』 연구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은 奇書版 『西遊記解説』이다.

奇書版의 해설은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주장한 것으로 첫째, 송대의 『大唐三藏取經詩話』(송대의 『西遊記』)의 특징을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는 ① 三藏法師가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이 약하며 먹기만 좋아하는 坊主로 등장한다는 점, ② 주인공은 계속 猴行者로 등장한다는 점, ③ 이야기에는 자연이나 사건의 묘사가 부족하며, 毘沙門<sup>54)</sup> 신앙을 설명하면서 ‘佛教의 感應傳에 있는 왕생전의 색채’가 강한 점을 지적하였다. 즉 宋代에 등장하는 猴行者는 ‘작은 아이설화’나 인도의 本生說話의 색채를 가진 獼猴王의 영향 속에서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元代의 『西遊記』’에는 『朴通事諺解』와 『永樂大典』에 게재된 자료

54) (역자주) 唐中期 부터 中國에 넓게 퍼진 密敎信仰의 한 형태이다.

를 통해 元代의 『西遊記』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것은 100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孫悟空・沙和尚・朱八戒가 등장하는 데, 바로 明代 『西遊記』의 원형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으로는 悟空이나 八戒는 “무서운 야수”로 등장한다는 점인데, 이것의 배경에는 몽고족의 지배에 따른 사회 정황이 투영되었다고도 보이며, 猴行者가 「陳巡檢梅嶺失妻記」의 요사한 원숭이 형상을 흡수했을 것도 추측할 수 있고, 작품에는 感應傳的인 성격이 남아 있지만 毘沙門天信仰의 쇠락과 함께 觀音信仰을 향한 轉移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명대의 『西遊記』’는 이야기의 구성이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의 삼장 출신담은 명대에는 무슨 이유인지 삭제되었으며, ‘元代’의 『西遊記』에 있는 이야기가 둘로 나뉘어 절의 변화나 양적인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손오공 형상에서 야수성의 불식과 大鬧天宮에서 지배계급에 대한 반역이 보이고, 西天取經의 여행에서 보이는 불굴의 정신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작자에 대해서는 『西遊記』의 작자가 원초의 丘處機에서 吳承恩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고 하였다. 『千頃堂書目』의 기술이나 吳承恩의 작품이 있는 「海鶴蟠桃篇」・「二郎搜山圖歌」가 소설의 第五・第六回를 연상시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으나, 그가 『西遊記』의 작자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다섯째, 판본에 대해서는 世德堂刊本・清白堂刊本・李卓吾批評本の 판본상의 요점을 소개한 후에 三藏 출신담이 들어 있는 朱鼎臣編本에 눈을 돌려서, 鄭振鐸의 학설을 강조하면서 世德堂刊本 이전에 完本이 있었다면 朱鼎臣은 이것에 의거해서 簡略本을 편찬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선상에서 朱鼎臣編本에 전체의 십분지일을 차지하고 있는 三藏 출신담을 볼 때, 朱鼎臣은 明代 原本의 이 부분을 성실하게 인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朱鼎臣本을 소개한 후에 清刊本으로 『西遊證道書』 이하의 대표적인 판본 이름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太田氏가 『西遊記』를 번역할 때 『西遊眞詮』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西遊記』’에서는 寶曆 八年에 『通俗西遊記』가 간행되었던 것, 『畫本西遊全傳』이라는 금자탑의 탄생, 馬琴에 의한 飜案, 그리고 明治時代의 河竹新七에 의한 각본화, 帝國文庫本の 유포, 安藤更生이 번역한 『全譯西遊記』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다.

## V. 『西遊記』 版本 研究의 여러 가지 學說

奇書版 『西遊記』 해설이 나오고 2년 후에 太田辰夫는 『朴通事諺解』의 인용문에서 밝혀진 ‘元本’ 문제를 『鎖釋眞空寶卷』의 수록문을 근거로 해명하여 「〈鎖釋眞空寶卷〉에서 보이는 〈西遊記〉이야기-元本西遊記考」<sup>55)</sup>를 발표하였다. 여기서의 주안점은 『鎖釋眞空寶卷』의 인용문에 의해 ‘元本’ 『西遊記』(『朴通事諺解』 인용본)에 수록된 이야기의 순서를 바꾸어 보면서 항목명을 증보시킨 점이다. 太田은 寶卷의 성립 연대를 좀더 전 시기로 추정하면서 여기에 반영된 『西遊記』의 이야기는 『朴通事諺解』에 인용된 『西遊記』와 같은 계통이며, 이것보다도 오래된 것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원래의 『西遊記』의 순서를 설정하기도 하면서 兪平伯의 지적을 받아들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明本에 보이는 개작의 흔적과 잠극 『西遊記』에 보이는 “新舊의 요소”의 혼합을 가정하면서 원래의 西遊記像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그리고 元本の 양상을 明本과 대비시켜 明本の 개작의 특징을 말하면서, 元本으로부터 明本으로의 확장 과정에 대해서는 編者が 元本에 있는 한 개의 사건을 두

55) 「〈鎖釋眞空寶卷〉に見える〈西遊記〉故事-元本西遊記考」, 『神戸外大論叢』 第一五卷 六號, 1965年.

개로 나누어 증가시켰고, 시대 정신의 변화에 의해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생겨서 불필요한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轉用하였음을 지적하였다.

‘元本’『西遊記』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후에 이전 奇書版의 해설에서 언급한 『大唐三藏取經詩話』를 고찰하였다.<sup>56)</sup> 여기에서는 첫째, ‘傳本에 대해서’라는 항목에서 取經詩話와 取經記의 流轉史에 있어서는 德富蘇峰의 宋本說을 긍정하였고, 특수 용어나 書名 등을 근거로 取經詩話-取經記의 순서를 인정하였다. 둘째, ‘佛典의 影響’에서는 取經詩話의 문체가 시와 문의 혼합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여기에는 불교경전의 특색이 보이며, 단락 분류는 『法華經』의 ‘品’ 구분과 상응하고 章 분류에서는 ‘漢譯佛典의 영향’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取經詩話가 가진 佛教的, 印度的 요소는 猴行者에게 姓이 없다는 점이나 한역 불전의 ‘獼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白衣나 秀才로 표현된 점은 중국 자체의 영향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各章의 考證’에서는 玄奘取經이 明皇傳說과 혼합되었을 가능성, 取經詩話와 毘沙門天信仰과의 깊은 결합, 小行者가 노새로 변하는 이야기는 『出曜經』·『河東記』의 계보에 있는데 明皇太子換骨傳說과 『默記』기사와의 연관성, 「深沙神記并念誦法」에서 보이는 深沙神, 혹은 鬼子母나 女人國의 배경과 특징 등에 대해서 추적 설명하였다. 그리고 取經詩話 「제11장」에 있는 唐三藏이 복숭아를 먹는 장면에서는 胡適이나 魯迅의 해석을 부정하면서, 無畏三藏에 연원한 ‘먹보삼장’이 반영되었다고 지적하고, 「제15장」에서 三藏이 福仙寺에 숙박하는 것은 無畏三藏이 洛陽의 福先寺에서 『大日經』을 번역하던 것과 관계가 있으며 이것은 나중에 猴行者가 출현하는 것의 복선이 된다고 하였다. 「제16장」에서는 定光佛로부터 心經을 받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송대에 이르러 定光佛이 각광을 받았던 영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제17장」에는 『賢愚經』 아래의 繼子에 관련된 설화가 혼합되어 나왔다고 했다. 猴行者·孫悟空의 출현에 대

56) 「《大唐三藏取經詩話》考」, 『神戶外大論叢』 第一七 卷一・二・三合併號, 1966年.

해서 南方熊楠이나 鄭振鐸의 各說을 소개하면서 그 결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大日經』의 유래와 『大日經序』를 거론하였는데, 여기에서 그는 ‘원숭이를 길안내로 삼는 착상이 생겨났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시화의 네번째의 특징으로 明皇의 시기에 長安에 온 善無畏를 계기로 해서 詩話로 轉化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성격’이라는 부분에서는 이 시화가 ‘불교의 感應傳의 성격에다 往生傳의 경향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太田氏가 『西遊記』 이야기의 宋本, 元本에 대해 검토하고 있을 즈음에, 柳存仁과 杜德橋<sup>57)</sup>씨가 『西遊記』의 판본 문제에 대해서 몇 개의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柳存仁은 朱鼎臣編의 『唐三藏西遊傳』을 보고 胡適이나 孫楷第의 견해(吳承恩本の 省略本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通行本 『西遊記』 중의 『西遊記傳』(楊致和編本)이 朱鼎臣編本과 많은 부분에서 닮은 것을 후자의 卷九의 回目을 들어 증명하면서, 朱鼎臣編本の 소박한 문체와 내용을 상세히 대조하여 『西遊記傳』은 이것을 근거로 字句를 다수 加減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胡適·孫楷第說의 ‘朱鼎臣編本은 吳承恩本の 省略本’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로 吳承恩이 朱鼎臣本の 골격을 바탕으로 百回本으로 고쳐서 편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선입관에 의한 추측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이처럼 柳存仁은 『西遊記傳』이 朱鼎臣編本の 省略本이라고 정의한 후에, 『吳承恩著-百回本西遊記』와 朱鼎臣編本·『西遊記傳』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百回本 第十一回의 일부분을 예시하면서 朱鼎臣編本이 생략본이라고 여기는 근거가 무너진다고 했다. 또한 朱鼎臣編本 卷六의 『宣一卷』에 있는 詩句는 百回本 이전의 ‘舊本の 通俗性’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講唱文學과 長篇作品의 중간적인 모습이라고 규정하고, 吳承恩은 이런 치졸한 것을 싫어하여서 개작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세밀한 예증

57) Doctor G.Dudbridge.

을 몇 개 들면서 柳氏는 판본 출현을 朱鼎臣編本・『西遊記傳』・百回本の 순으로 하였다. 그런 후에 百回本 『西遊記』의 세 계통을 1.華陽洞天主人校本 2.李卓吾先生批評本 3.古本西遊證道書本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1과 2는 明版에는 通行本 第九回の 「陳江蕊江流和尚」 이야기가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吳承恩은 朱鼎臣編本을 읽고서 朱本이 문의를 중사하였지만 문사에서는 구속을 받는 점이 나타나자 문장을 고쳤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세 번째 계통인 『西遊證道書』에는 몇 가지 특색이 있는데, 첫째로 編者인 汪象旭이 虞集序와 長春眞君傳을 함께 게재하면서 작자를 丘處機로 하고 吳承恩의 이름을 숨긴 점, 둘째로 「陳光蕊江流和尚」 이야기를 넣어서 一回를 늘렸으며, 「大略堂刻本の 釋厄傳」은 劉蓮臺刊西遊釋厄傳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世德堂刊本에 있는 「陳元之 序」는 吳承恩이 죽은 지 10년을 전후로 씌여졌다는 점을 말하였다. 특히 「天潢」・「王自製」라는 문자로부터 吳承恩이 만년에 荊王府紀善에 임직하였기 때문에 『西遊記』의 원고는 荊王이 본 후에 王府에서 세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후의 연구 과제라고 말하면서 全論의 매듭을 지었다.<sup>58)</sup>

더그브리지(杜德橋)는 「西遊記祖本考的再商榷」<sup>59)</sup>이라는 글에서 柳存仁의 『西遊記』諸本을 재검토하면서 楊致和編本은 吳承恩 百回本에 있는 한 版本을 생략한 것이고, 朱鼎臣編本은 이 楊致和編本の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서 吳承恩本の 생략본으로 보았다. 그 후에 더그브리지씨는 楊致和編本の 최고 판본이라고 할 수 있는, 明 朱蒼嶺에서 간행한 楊致和編本을 세상에 최초로 소개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楊致和編本과 朱鼎臣編本을 百回本 『西遊記』와 비교하였다.<sup>60)</sup> 그리고 현존하는 諸版本에 대해 孫楷第 이래의

58) 「四遊記의 明刻本-倫敦所見中國書目提要之一」 (四) 「附錄:跋唐三藏西遊釋厄傳」, 『新亞學報』 第五卷 二期, 1963年.

59) 『新亞學報』, 第六卷 第二期, 1964年.

60) 「The hundred-chapter Hsi-yu chi and its early versions」, 『Asia Major』, N.S. 14-2, 1969.

연구를 검토하고 (甲) 華陽洞天主人校本 (乙) 李卓吾批評本 (丙) 清刻節本 (丁) 清刻繁本으로 분류하고, 특수한 판본에 대해서는 Piet교수의 지도를 거쳐 자신이 발견한 楊致和編 朱蒼嶺刊本과 朱鼎臣編本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판본과 『西遊記』 성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문제제기를 하였다. ① 楊本·朱本과 百回本の 관계, 楊本과 朱本の 관계, 혹은 楊本은 생략본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 ② 通行本の 第九回 「陳光蕊江流和尚」 이야기는 원 소설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혹은 원래 존재하기는 했는가? 라는 문제 ③ 楊致和本의 경우 甲·乙의 두 계열에 있는 版本의 생략본인가, 아닌가? 라는 문제였다. 그리고 朱鼎臣編本에 대해서는 朱本の 卷八부터 생략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楊本에 가까워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朱本の 특징이 되는 卷四의 「陳光蕊」 이야기가 百回本の 詩讚에 흔적이 보이는 것에서, 朱鼎臣은 複數의 제제에서 『西遊釋厄傳』을 만들었다고 추측하는 한편, 전반부에서 卷四를 제외하고는 百回本에 근거하였다고 보았다. 楊本·朱本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에 두 版本의 관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는데, 내용의 記述을 비교하고서 朱本の 후반부는 楊本을 지본으로 약간 생략하여 나왔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朱本の 성립 부분에서 최대의 문제는 朱本 卷四와 汪憺漪의 『西遊證道書』 第九回の 관계를 고찰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甲·乙本과 丙本の 第九回부터 第十一回の 回目등과 비교했을 때, 朱本은 甲·乙本과는 일치하는데 丙의 證道書의 版本과는 다르며, 汪憺漪 版本의 第九回는 직접 혹은 간접으로 朱本을 답습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陳光蕊」 이야기의 지위는 『西遊記』의 이야기에서 二郎神이나 眞武神話의 인용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西遊記』의 구성상 필요 불가결한 것이 아니므로, 世德堂刊本 이후에는 이것의 생략된 형식을 따르게 되었을 것이다. 朱鼎臣은 甲·乙계열 百回本에 근거했으며, 卷四에 관해서는 「陳光蕊」 이야기를 말하는 「劣本」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吳承恩과 「西遊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田中巖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吳承恩



을 소설 『西遊記』의 편자로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陳元之序』와 『晁氏寶文堂書目』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百回本 『西遊記』의 출현과 유포는 十六世紀 말엽으로 추측된다고 하면서 논의를 끝냈다.

柳存仁, 더그브리지의 연구와 궤를 같이하여, 太田辰夫도 朱鼎臣編本の 위치에 관한 견해를 발표하였다.<sup>61)</sup> 여기에서 그는 첫째, 朱鼎臣編本에 대한 孫楷第, 鄭振鐸, 그리고 최근의 柳存仁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둘째, 朱本은 『西遊釋厄傳』의 생략본이고, 世德堂刊本은 그것의 增訂本인데, 朱本에서는 『西遊釋厄傳』을 ‘의도적으로 삭제’하였으나, 옛모습을 보존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朱本은 『西遊釋厄傳』의 講唱文學的 흔적을 계승하였으며, 世德堂刊本은 여기에서 「陳光蕊江流和尚」 이야기를 없애고 최초로 分回한 판본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西遊釋厄傳』과 ‘元本’ 사이에 다른 古本(『玄奘三藏渡天由來緣起』 인용본)이 있으리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古本’ 『西遊記』의 존재를 근거로 吳承恩을 작자나 집대성한 이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西遊釋厄傳』을 고쳐서 世德堂刊本을 만든 작업을 한 인물로 吳承恩을 상정하였다. 셋째, 「陳光蕊」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朱本’은 『西遊證道書』의 내용과 다른 점이 많지만 일치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보건대 양자 사이에는 간접적인 전후 계승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네번째, 朱本과 世德堂刊本은 『西遊釋厄傳』에서 나온 것인데 양간본 사이에는 전후 계승 관계는 없으며, 이 두 가지 刊本에서 잃어버린 『西遊釋厄傳』의 처음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鄭振鐸의 楊致和編本에 대한 언급을 받아들이면서, “楊本은 朱本の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양자 간에 직접적인 계승관계는 없는 듯 하다.”라고 말한 胡適의 설을 부정하였다.

‘元本’ 『西遊記』 이후, 그리고 世德堂刊本 이전에 유실되었던 古本 『西遊記』를 상정하는 과정에서 太田辰夫는 유력한 자료로 『玄奘三藏渡天由來緣起』를 발굴하였다.<sup>62)</sup> 太田氏는 「玄奘三藏渡天由來緣起」의 『西遊記』 이야기

61) 「《唐三藏西遊傳》考」, 『神戶外大論叢』 第一七卷 四號, 1966年.

가 玄奘의 출생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점, 비슷한 사건의 전래, 유치한 묘사와 정채로움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것이 현존의 明本보다 오래된 原本에서 나왔으며 이 原本의 시기는 明 초엽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古本「西遊記」에 대한 가정은 당연히 그것과 현존하는 明刊本『西遊記』諸本の 관계를 살피게 한다. 여기에서 太田辰夫는 孫楷第·田中巖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明刊 諸本을 정리하고 계통을 세웠다.<sup>63)</sup> 여기서는 明刊本을 ①世德堂刊本, ②李卓吾批評本, ③唐僧『西遊記』, ④楊閔齋本, ⑤閔齋堂本으로 분류하고, 이것도 또한 簡本과 繁本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華陽洞天主人校」라는 형식상의 공통점을 근거로 판본 명칭을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世德堂刊本에서 약간 생략한 것이 『唐僧西遊記』이며 閔齋堂本은 李卓吾批評本을 생략한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판본의 정리와 계통 세우기를 하고 난 후에, 朱鼎臣編本을 世德堂 版本과 나란히 놓고 그 독자적인 가치를 지적하였다. 당시에는 楊致和編本の 善本이 발견되지 않아서 『西遊記』의 異本으로서 朱鼎臣編本만을 중시하였으나, 다음 논문<sup>64)</sup>에서는 楊致和編本으로 눈을 돌렸는데, 이 해에 더그브리지가 明刊本으로서 楊致和編本の 발표를 공포하면서 『西遊記』 판본 연구는 더욱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太田氏는 앞의 논문에서 전반부는 『永樂大典』에서 인용한 『西遊記』에, 후반부는 楊致和編本에 할당하였다. 『永樂大典』中の 「夢斬涇河龍」에 대한 검토에서는 魏徵斬龍의 이야기를 馬致遠의 「薦福碑」雜劇에서 본단 것이며, 元初에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朴通事諺解」·『鎖釋眞空寶卷』를 인용한 단계에서는 이 『西遊記』의 영향은 점차로 사라지는 것으로 보이며 明本에 와서는 斬龍과 門神의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정리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62) 「《玄奘三藏渡天由來緣起》と《西遊記》の一古本」, 同前 第一八卷 一號, 1967年.

63) 「明刊本《西遊記》考」, 同前 第一九卷 一號, 1968年.

64) 「《西遊記》の二異本」, 同前 第二十卷 三·四合併號, 1969年.

한편, 楊致和編本에 대해서는 魯迅의 楊本祖本說을 訂正하면서 鄭振鐸이 胡適의 설에 비판을 가한 것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사실과 그 동안의 學說史를 논술한 후, 東洋文庫藏聚古齋刊本の 서지를 소개하였고, 이것이 胡適藏本과 동일한 것으로 추측하면서, 통행하는 鉛印本에는 刊本の ‘脫落部分’이 보충된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이런 전제에서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 分回에 관해서는 世德堂刊本은 朱鼎臣編本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楊致和編本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전반부」 즉 鉛印本の 第一五回까지는 世德堂刊本을 기본으로 해서 생략한 것인데, 단순히 생략한 것이 아니라 ‘고친 부분도 많고’ 朱鼎臣編本을 참고한 곳도 있다고 하였다. 후반부에 대해서는 楊本 第一六回の 후반부터 朱鼎臣編本을 이용하였는데 楊致和編本은 朱鼎臣編本과 같으며 詩와 詞를 사용한 詞話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했다. 또한 여기에는 朱鼎臣編本과 世德堂刊本에서 보이지 않는 詩가 아홉 수나 있는데, 결론적으로 楊致和編本은 世德堂刊本을 생략한 것으로서 朱鼎臣編本에서 보이는 ‘숨씨 나뭇’이나 용두사미의 내용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생략을 하지 못한 텍스트로 보았다.

『永樂大典』 인용본은 太田氏의 예상대로 『西遊釋厄傳』과 관계가 있는데, 楊致和編本은 世德堂刊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앞의 논문에 이어서 『西遊釋厄傳』과 世德堂刊本에 중점을 두고 「西遊記雜考」<sup>65)</sup>를 발표하였다. 太田氏는 또한 世德堂刊本은 『西遊釋厄傳』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증보한 「王府本」에서 나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王府本」과 世德堂刊本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朱鼎臣編本과 世德堂刊本을 이용한 『西遊釋厄傳』의 옛날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朱鼎臣編本과 世德堂刊本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를 네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西遊釋厄傳』의 상정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 결과 『西遊釋厄傳』은 200-300개의 講唱文學 형식이 들어간 세밀한 작품이라고 규정하였다.

65) 同前 第二一卷 一・二合併號, 1970年.

『西遊釋厄傳』에 대한 고찰을 끝낸 후에 새로운 『王府本』에 대한 연구로 들어가서, 그것과 世德堂刊本の 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먼저 世德堂刊本の 「陳元之序」에 대해서 世德堂이라는 부분과 陳元之라는 인물에 대해 해부한 후에, 중국의 연구에서는 華陽洞天主人을 宰相 李春芳으로 여기고 있고, 吳承恩이 그에게 올린 詩句에 ‘華陽洞’이라는 語句가 보이는 것을 근거로 두 사람의 우호관계를 미루어 짐작하여서 吳承恩의 『西遊記』를 李春芳이 교정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한정된’ 견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西遊記』를 吳承恩이 지었다는 점을 떠나서 李春芳이 교정했다는 점을 전제로 전반적인 재검토하였다. 여기에서 華陽洞天主人으로 지목되는 李春芳은 萬曆시대에 小說의 編者로 활동하던 晉人 ‘李春芳’은 아니라고 한 후, 「陳元之序」에 있는 『西遊記』는 王府 혹은 八公의 무리나 王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다음으로 鄭振鐸과 劉修業의 학설을 참고하여 吳承恩이 荊府의 紀善에 잡혀 있었다는 劉修業의 학설에 따라 「陳元之序」의 王은 湖北省의 ‘荊王’ 朱翊鉅로서, 이 왕부에 『西遊記』가 있었다면 이것은 『西遊釋厄傳』인데, 吳承恩이 王府에 저참하고 간 것은 바로 『西遊釋厄傳』이며, 여기에 약간 가필을 한 후에 「西遊記」가 형성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래서 「陳元之序」가 인용된 舊序는 荊王 자신의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吳承恩이 『西遊記』에 수정 가필했을 시기는 荊王이 죽은 隆慶 四年이고, 華陽洞天主로 추측되는 李春芳이 교정을 행했을 시기는 隆慶 五年부터 萬曆 十二年 사이로 보았다. 그가 교정을 한 이유는 이것이 荊王이 아끼던 소설 유형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荊王과 吳承恩의 관계를 토대로 「王府本」 『西遊記』가 荊王府로터 나왔다는 추측과는 별도로, 盛于斯的 『休菴影語』를 근거로 王府가 周王府일 가능성도 긍정하였다.

그런데 이런 견해는 吳承恩·李春芳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西遊釋厄傳』과 世德堂刊本 사이에 「王府本」이 있었다는 가정을 토대로 최후의 형태까지 설명하였다. 「王府本」이 稿本人가 刊本人가

에 대해서는, 稿本일 경우에는 荊王의 명에 따라서 吳承恩이 수정한 稿本에 李春芳이 가필한 것으로 보이고, 刊本인 경우에는 ㉠吳承恩 수정본의 간행물에 李春芳이 교정을 한 것과 ㉡吳承恩 수정원고를 李春芳이 교정한 것의 두 가지 계통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荊王府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王府本」은 未分回된 것이며 世德堂刊本에 와서야 처음으로 分回를 하였다. 『西遊釋厄傳』에 있는 「陳光蕊」 이야기는 「王府本」에는 생략되었는데, 생략 형태는 世德堂刊本으로 계승되었다.

明代の 諸本과 成立史의 흐름을 정리한 후에 太田氏は 清刊本の 연구에 착수하였다. 「《西遊證道書》考」<sup>66)</sup>에서는 『西遊證道書』의 書誌, 「虞集序」, 評者と 出版, 작품의 내용 순으로 版本을 분석했다. 「虞集序」 부분에서는 魯迅의 착오를 지적하고, 아울러 虞集序 자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위작이 아님’을 보였다. 또한 序中에 기재되어 있는 危敬夫나 紫瓊道人(張模)과 관계되는 道統, 혹은 虞集이 紫瓊道人에게 소설 『西遊記』의 序文을 주었던 배경을 상세히 고찰하였으며, 이 책로부터 당시의 도교적 색채를 가한 소설 『西遊記』가 나왔고, 여기에 도사 張模가 크게 윤색을 가한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虞集序에 대해서 ‘위대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證道書を 평가한 汪象旭, 黃周星, 그리고 插入畫家 胡念翬를 소개하고, 이 책의 간행 시기를 康熙初로 잡았다. 내용에 대해서는 玄奘出生이야기에 중점을 두면서, 評者가 ‘古本과 俗本’을 이용해서 본서를 편집했다는 발언을 인정했고, 證道書の 第九回를 보건대 『西遊釋厄傳』보다 오래된 分則本을 이용했다고 하면서 俗本은 玄奘出生이야기가 없는 華陽洞天主校本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孫楷第가 주장한 本書 第九回는 汪象旭의 僞作이라는 견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였다. 또한 鄭振鐸이 證道書を 중시하고 『西遊眞經』을 홀시한 점을 비판하면서, 후자의 第九回의 성격을 예시하여 그 뛰어난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評語가 ‘明末文人風の 우스개나 조롱조’의 경

66) 同前 第二一卷 五號, 1970年.

향이 있는 것과 『十卷本西遊眞詮』의 존재를 소개하였다.

清刊本에는 『西遊證道書』 이외에도 몇 개의 판본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太田氏は 「清刊本西遊記考」<sup>67)</sup>를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이 논문의 앞에 吳昌齡의 劇과 『楊東來先生批評西遊記』를 언급한 「戲曲西遊記考」<sup>68)</sup>를 발표하였다. 먼저 「戲曲西遊記考」부터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첫째로 吳昌齡의 劇에는 『萬壑清音』에 수록된 「諸侯餞別」의 서두에 있는 江流兒의 이야기가 楊東來本 『西遊記』나 朱本보다 오래된 단계의 것이 수록되어 있으며, 吳昌齡 劇은 구성상 결작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둘째로 『楊東來先生批評西遊記』를 언급하였는데, 그가 발견해서 소개하게 된 내력들을 소개한 후에 楊東來本 『西遊記』의 서두에 위치한 「總論」에 있는 ‘吳昌齡의 作을 假託한 부분 云云’은 신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각 齣<sup>69)</sup>의 개괄을 소개하면서 개별 검토를 하였는데 卷一에는 玄奘의 前身이 『毘盧伽尊者』이라는 점, 玄奘의 養育僧의 이름이 丹霞禪師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卷二에서는 「詔餞西行」은 吳昌齡의 劇과는 큰 차이가 나며 華光의 이야기가 『南遊記』보다 빠른 단계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卷三에서는 孫行者가 「陳巡檢梅嶺失妻記」에 가까운 면모를 지니며, 또한 鬼子母나 愛奴兒는 世德堂刊本에는 鐵扇公主와 紅孩兒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卷四의 豬八戒의 등장에는 이것의 근원을 『幽怪錄』의 郭元振의 이야기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明刊本과 비교해서 회곡의 특징을 세 개로 정리하였다. ①明刊本과의 형식적인 차이가 크게 나는 점, 이것은 오래된 西天取經의 이야기를 반영한 것이며 ②明本과 비교해 볼 때 이야기의 순서가 다른데 이것도 회곡의 오랜 단계의 반영으로 보인다. ③悟空의 활약면에서 悟空은 玄奘을 지키는 神佛로 나오는데, 문학적인 측면에서 소

67) 同前 第二二卷 四號, 1971年.

68) 同前 第二二卷 三號, 1971年.

69) (역자주) 中國戲曲에서 쓰이는 용어로 일종의 단락을 표시하는 용어이다. 中國小說로 말하자면 回目に 해당한다.

설 쪽이 더 뛰어나다고 판정하였다. 마지막으로 楊東來批評劇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孫楷第의 학설을 재검토를 하면서 오랜 연원을 가지는 楊景賢本과 同一本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楊東來의 修正本’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張衛經의 견해를 ‘非常識’이라고 버리고, ‘楊東來本西遊記’는 당시 통행하던 『西遊記』劇으로서, 小說『西遊記』에 대항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 후에 셋째로 ‘陳光蕊江流和尚’에 대해서는 『南詞敘錄』 등의 기사를 언급하였다. 넷째로 ‘鬼子母揭鉢’은 吳昌齡이 지은 ‘鬼子母揭鉢’이라는 劇이 있는 점, 그리고 『劉全進瓜』에 들어 있는 楊顯之의 ‘劉泉進瓜’는 世德堂刊本에도 보이는 점 등을 간단히 첨부하였다. 그리고 (付錄1)로써 ‘洞天主記’의 楊梯序에 『西遊記』戲曲을 의식적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楊東來本西遊記의 祖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付錄2)에서는 ‘二郎神鎖齊天大聖’이라는 劇을 넣었고, (付錄3)에서는 ‘爭玉板八仙過海’이라는 劇을 부가시켰고, ‘補注’에서는 ‘楊東來本西遊記’의 毘盧伽尊者是 賓頭盧尊者가 와전된 것으로 추측했다. 또한 여기에서는 泉州 開元寺塔의 조각에 나타나는 僧과 작은 원숭이의 조합에 대해서, 이 조각의 내용이 당시 西天取經 이야기의 일단락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시대는 좀 더 이른 시기로 추정하였다.

『清刊本西遊記考』에서는 『西遊真詮』, 『西遊原旨』, 『新設西遊記』의 書誌와 版本上的 특징을 지적하면서, 孫楷第나 田中巖의 연구를 참조하여 (付錄1)로 『通易西遊正旨』, (付錄2)로 『西遊記評注』의 書誌적인 概要를 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太田辰夫는 이제까지 스스로 발표한 『西遊記』 관계 여러 논문의 ‘補訂’을 했는데, 太田氏의 학설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①, ③, ④, ⑦, ⑨의 다섯 항목이며 그것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大唐三藏取經詩話』는 『西遊記』成立史에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豬八戒의 내원은 『太平廣記』卷四三九에 있는 李汾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으며, 『永樂大典』에서 인용한 ‘西遊記’는 明初本인 듯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③ 『西遊記』와 『라마야나』의 관계를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④ 元代本 『西遊記』와 『西遊釋厄傳』 사이에 있는 일종의 古本으로 『玄奘三藏渡天由來緣起』가 있으니, 「朱本」의 전반과 世德堂刊本은 「西遊釋厄傳」에서 나왔고 「楊本」은 「朱本」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朱本」의 후반은 「楊本」을 사용하였으나 전반에서는 계승관계가 보이지 않으며, 「朱本」의 卷四・卷六에 보이는 貞觀 十三年이라는 시간의 모순은 이것이 근거로 삼은 「西遊釋厄傳」 때문이고, 朱鼎臣은 古本の 本문을 스스로 조절해서 베꼈다. 그리고 ⑦ 「楊本」에는 朱蒼嶺刊本이라는 明代的 刊本이 있는데 이것은 上圖下文의 福建版形式이고, ⑨ 『西遊證道書』는 『西諦書目』에 보이는데 일본의 것과 일치하지 않고, 虞集은 『長春真人西遊記』를 본 듯한데 이것은 희귀본으로서 『正統道藏』 편찬 당초에는 존재가 불명확하다가 발견된 후에 『道藏』의 맨 끝에 위치하게 된 듯하다. 그리고 虞集序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하며 虞集은 「玄風慶會錄」序를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단계에서 補正한 여러 점은 이전 太田說에 대해서 중요한 수정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1969년 영국에서 楊致和編本 明刊本이 더그브리지에 의해서 소개되면서 版本 연구가 심화되었다. 太田辰夫도 종전의 연구를 이어서 「『西遊記傳』考」<sup>70)</sup>를 냈는데, 이후 영국에서 朱蒼嶺刊本을 보고 「『唐三藏出身全傳』考」<sup>71)</sup>를 계속 발표하였다. 「『西遊記傳』考」에서는 版本에 대한 언급과 「楊本」과 世德堂刊本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胡適과 鄭振鐸이 「楊本」을 省略本으로 말한 점을 인정하였으며, 「楊本」이 의거한 것은 分回本으로 된 王府本으로 이것은 전반에 가필을 한 불완전본이며, 世德堂刊本은 완전히 王府本에 의거했다고 太田氏는 자신의 이전의 설을 고쳤다. 그래서 「朱本」의 후반은 「楊本」의 후반을 사용했다고 하면서 오래된 「西遊釋厄傳」도 사용하였으며, 「楊

70) 『神戶外大論叢』第二三卷 一・二合併號, 1972年.

71) 同前 第二四卷 一號, 1973年.



本』과 世徳堂刊本の 비교 검토에서는 전자의 第二十則까지는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가 第二十一則부터 차이가 크게 벌어졌는데 기술에 있어서도 미숙하며 불완전함을 드러낸다고 하였고, 「楊本」은 世徳堂刊本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이른 版本에 의거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楊本」과 「朱本」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길, 「朱本」은 전반에 「西遊釋厄傳」을 베끼면서 약간의 생략을 했으며 후반에는 「楊本」을 사용했고, 第九에서는 「楊本」의 내용을 삭제하고 생략 합병하였다고 하였다.

太田氏は『西遊記傳』의 검토와 병행해서 이 해에 두 개의 補論-「西遊記源流考」<sup>72)</sup>・「西遊記成立史의 諸問題」<sup>73)</sup>도 발표하였다. 이것 중의 하나인 「西遊記源流考」에서는 清代本 『西遊記』의 내용을 네 개로 구분해서 각각 소재가 되는 근원을 詩詞에서 설명하였다. 「一, 孫悟空의 誕生」에서는 孔另境이 소개했던 劉克莊 詩 두 수에 보이는 猴行者의 예를 들었으며, 계속해서 「兩世姻緣」・元散曲 「馱背妓」에 孫行者를 묘사한 곡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悟空이 돌에서 생겨났다는 발상이 생겨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예를 보였으며, 또한 水簾洞, 四海龍王, 東方朔傳說, 巨靈神에 대해서도 간단히 고찰하였다. 「二, 玄奘의 탄생」에서는 兪越의 학설이 불충분하다고 여기면서, 한편으로 倉石武四郎・澤田瑞穂의 학설을 소개한 후에 「唐三藏」의 호칭이 『歷代名畫記』 卷三 敬愛寺條에 보이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호칭은 元의 散曲이나 雜劇, 혹은 『警世通言』 등에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唐三藏을 먹기 좋아하는 好色の 俗僧에 비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三, 太宗의 지옥 경험」에서는 樵夫・漁夫의 문답 재료는 元 散曲등에서 많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西野貞治의 연구를 인용하여 十大冥王등을 서술하였고 元曲의 용례를 인용하였다. 「四, 玄奘의 인도여행」에서는 豬八戒의 來源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俗文學 중에 보이는

72) 『鳥居久靖教授華甲記念 中國の語言と文學』, 1972年.

73) 「西遊記成立史의 諸問題」, 『日本中國學會報』 第二四集, 1972年.

‘天蓬<sup>74)</sup>’의 예를 들었다. 烏巢禪師에게서 心經을 얻는 장면에 대해서는 慈恩傳·李洞詩圓至注 등에서의 心經 전설을 소개했다. 그리고 任昉의 『述異記』에 있는 나무가 사람이 되는 이야기나 人參果, 八角井, 火炎山, 孔雀經 등을 고찰하고, 최후로 明本·『鎖釋真空寶卷』·『朴通事諺解』의 固有名詞 對照表를 덧붙이며 논의를 끝냈다.

한편, 『西遊記 成立史의 諸問題』에서는 虞集序·陳元之序와 明代 諸本の 관계를 다시 언급하였다. 「一, 虞集의 序」에서는 이전까지의 고찰을 검토한 후에 虞集序는 大略堂本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西遊記』 발달사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보았고, 이것은 『邱祖語錄』의 기사로 보건대 元代 丘處機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小說 『西遊記』와 관계가 있다고 추측하였다. 「二, 華陽洞天主人校本과 陳元之序」에서는 「陳元之 序」중의 王은 몇 대 왕인지는 알 수 없으나 周王이라고 여기면서, 吳承恩을 校正者로 가정하고, 荊王과의 관계도 고찰하였다. 그리고 世德堂刊本の 前身은 王府에서 나온 것으로 양자의 간에는 차이가 없고, 世德堂刊本の 衡學的인 文字와 分回 체제는 ‘王府本’에서 비롯된 것이며, 華陽洞天主人을 李春芳으로 보는 문제는 吳承恩으로 고집하는 점에서 나온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종전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른 점으로 보인다. 「三, 明代 諸本の 關係」에서는 世德堂刊本·「朱本」·「楊本」의 세 가지 종류를 들었는데 세 종류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王府本’을 넣어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太田氏は 「『唐三藏出身全傳』考」<sup>75)</sup>에서는 楊致和編本の 底本을 東洋文庫本으로부터 더그브리지가 발견한 영국의 明版 朱蒼嶺 刊本으로 바꾸면서 더그브리지의 학설을 참고하여 楊致和編本을 다시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 중요한 점으로는 「二, 楊本 본문의 문제점」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第一則이 世德堂刊本과 차이가 큰 것은 이것이 생략하고 바꾼 것이 많기 때문

74) (역자주) 天蓬은 陶弘景의 『真誥』에서 보이는데 晚唐시기에는 道教神으로 존경받았다. 『雲笈七籤』에는 北斗의 太帝에 소속된 장군으로 나타난다.

75) 同前 第二四卷 一號, 1973年.

이며, ‘陰陽’등의 부분과 世德堂刊本の 첫머리는 邵雍<sup>76)</sup>에 영향받은 ‘王府本’의 흔적이며, 이것 이전의 『西遊釋厄傳』에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第二則 이후에서는 世德堂刊本과 다른 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玄奘의 출신에 관한 내용은 ‘楊本에서 고쳐진 부분’으로 추측하였다. 第一七則에서는 ‘楊本’은 世德堂刊本에 비할 때 ‘차이가 크며’,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였고, 우스개 소리같은 것은 ‘楊本’에서는 삭제되었다고 추측했다. 第二一則에서는 世德堂刊本과 ‘楊本’의 차이로부터 후자가 推敲가 부족한 版本을 근거해서 고쳤다고 말하였다. 第二八則에서는 ‘楊本’은 字數가 적은 이야기 순으로 순서를 변경했다고 추측했다. 太田氏は ‘結論’으로 ‘楊本’의 후반은 전반에 비해서 世德堂刊本과 차이가 크며, 世德堂刊本이 ‘합리적’이며 ‘推敲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楊本’의 第一七則, 혹은 第二十則 이하의 부분은 未改訂의 ‘王府本’에 의거했으며, ‘付記’에 ‘楊本’의 일종으로서 錦盛堂刊本을 周越然의 서술을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楊致和編本에 대해서 일정한 견해를 밝힌 太田氏は 『『目連求母勸善戲文』所引『西遊記』考』<sup>77)</sup>에서 目連戲文에서 보이는 『西遊記』 이야기가 明本 『西遊記』, 楊景賢의 『西遊記』와 일치하며, 『鎖釋眞空寶卷』에 반영되었거나, 혹은 오래된 『西遊記』를 채용했다고 보았다. 이후에 太田氏は 1977년에 와서 이미 발표한 『西遊記』 관계 여러 논문을 개별 작품의 연대순으로 배열하면서 약간의 보충을 하고, 논고의 통일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西遊記成立史略』<sup>78)</sup>을 내었다. 이 해에 필자도 『西遊記』연구의 말단에 참가하여 석사 논문의 부록으로 『西遊記學論說目錄版本所藏目錄與研究史料目錄』(1977年 4月)을 냈으며, 孫行者와 『元本西遊記』와의 관계에 대해서 東北中國學會에서 발표하였다.(同年 五月)

76) (역자주) 宋代의 哲學者로서 諡號는 康節이다. 易에 정통하여서 先天卦位圖를 지었다. 著書로는 『觀物編』, 『漁樵問答』, 『皇極經世』 등이 있다.

77) 同前 第二六卷 一號, 1975年.

78) 同前 第二八卷 三號, 1977年.

## VI. 최근의 상황과 전망

『西遊記』연구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原刊本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1983년에 河南省의 中州書畫社에서 『李卓吾先生批評西遊記』가 영인되어 複製線裝本으로 간행되어 나오게 되고, 1985년에는 臺灣의 天一出版社에서 『明清善本小說叢刊初編』에서 「西遊記專輯」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속에는 世德堂刊本・『唐僧西遊記』・楊閩齋本・朱鼎臣編本・楊致和編『唐三藏出身全傳』・『西遊證道書』 등의 12種이 영인되어 있다. 여기에 明清의 희귀본을 쉽게 볼 수 있게 됨에 따라서 『西遊記』 연구도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1980년 王靜如氏가 소개한 西夏榆林窟의 唐僧取經圖도 唐三藏西天取經 이야기의 유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大唐三藏取經詩話」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한 더그브리지씨의 견해도 주목할 점이 있다.<sup>79)</sup> 판본 연구에도 엘렌 위드머<sup>80)</sup>가 淸初의 還讀齋를 비롯한 書林 연구를 하는 중에 『西遊證道書』의 간행을 康熙二年(1663年)으로 단정하면서 그것의 출판 당시를 해명하려고 한 점은 큰 성과인데<sup>81)</sup>, 위드머씨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大略堂釋厄傳』의 실체가 좀더 밝혀진다면 이후의 판본 연구에 파문이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다른 한편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주목을 받아오던 目連戲가 『西遊記』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中野美代子氏는 『西遊記』 번역을 하던 중에, 泉州開元寺東西塔의 浮彫의 연구를 진행하여 「梁武帝와 唐三藏」의 浮彫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었다<sup>82)</sup>. 또 入谷仙介氏에 의

79) 「The Hsi-yu Chi Monkey and the Fruits of the Last Ten Years」, 『漢學研究』 第六卷 一期, 1988年.

80) Ellen Widmer, 中國名 魏愛蓮.

81) 「Hsi-yu Cheng-tao Shu in the Context of Wang Ch'i's Publishing Enterprise」, 『漢學研究』 第六卷 一期, 1988年.

한 『西遊記』와 『오딧세이』, 『古事記』, 『헤라클레스이야기』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신화적인 모티프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과<sup>82)</sup> 같은 시도가 있다. 그러나 이런 가설의可否는 이후 성과가 어떠한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西遊記』受容史 부분에는 베트남에 있어서의 『西遊記』 수용을 말해주는 字喃版『西遊傳』 등의 발견, 몽골지방에서의 청대 몽골 譯本의 소개, 티벳문화와 『西遊記』의 연관, 朝鮮朝의 文人 朴菊隱(淳益)의 舊藏李卓吾批評本의 발견, 일본에서의 『通俗西遊記』·『五天竺』 연구 등이 필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다.

그런데 위에서 종래의 『西遊記』연구의 중요한 족적을 검토해 왔는데, 이런 『西遊記』의 여러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혹은 석연치 않은 점은 先學의 업적에 도움 받아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종래의 『西遊記』연구를 개괄해 본 결과 그 연구 방법의 중요하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西遊記』의 여러 판본의 조사, 정리 그리고 등장인물의 출신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는 작자 吳承恩에 대한 고찰로써 그와 『西遊記』의 내용과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西遊記』의 수용과 영향에 관한 것이며, 넷째는 『西遊記』의 문학적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로 판본조사와 정리들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宋, 明, 淸 각 시대의 주요한 판본의 書誌學的인 검토가 행해졌으니, 이에 따라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조사에서 취급하지 않은 중요한 판본도 아직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넣어서 더욱 상세하고 계통적인 판본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西遊記』형성사를 연구하려고 할 때 宋(元), 明, 淸 각 시대의 판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여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

82) 「十八羅漢・梁武帝・目連戲와 初期 『西遊記』-泉州開元寺東西塔浮彫考」, 『日中比較文化』第一號, 1991年.

83) 「孫悟空とギリシヤの神々」, 『日中比較文化』第二號, 1991年.

분발할 필요가 있는데, 明代의 世德堂刊本 『西遊記』를 설명하기 위해서 『西遊記』이야기가 발전된 과정을 건강부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것은 주의할 부분이다.

둘째로 작자와 『西遊記』와의 관련에 대한 고찰은 작자를 吳承恩으로 근거하여, 그 위에 吳承恩의 遺作과 生涯를 기반으로 해서 『西遊記』의 작품평가를 행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 있어서 吳承恩이 『西遊記』을 작가로 보는 데는 실증성이 부족하며 근거가 박약한데,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고찰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과 오해를 남길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역대의 讀書人들이 『西遊記』의 형성의 각 과정에 간여한 만큼 吳承恩을 작가로 보고 그 작자를 분석하여 문학작품을 이해하게 된다면 작품의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로 거론한 『西遊記』의 수용과 영향에 관한 연구는 종래에 있어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은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일본문화과의 관련 하에 수용에 관한 검토는 행해져 왔지만 이 결과는 문제점이 있으며, 중국이나 다른 동아시아문화권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정황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西遊記』가 동아시아 여러나라에 유포된 상황을 생각한다면, 각국의 독자적인 문학을 연구한 바탕 위에 여러 측면의 검토가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넷째의 문학적 평가에 대해서는 世德堂刊本 『西遊記』의 내용을 인상평가한 연구는 많지만, 『西遊記』가 가진 역사성, 혹은 구성의 특징, 오락성 등을 평가하는 視野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에 있어서의 『西遊記』평가는 ‘불우한 문인’ 吳承恩과의 관련성을 위주로 해서 敎條主義的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해석이 지배적인데,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순수하고 독자적인 『西遊記』의 문학성을 추구하는 연구는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